

전세계 한상인들, 전주 매력 '풍덩'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간 전주한옥마을 곳곳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즐겨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를 위해 전주시를 찾은 전세계 한상인들이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 곳곳에서 전주의 문화를 즐겼다.

전주시는 지난 22~24일까지 사흘 동안 전주를 찾는 전세계 한상인들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의 맛과 멋 등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대회 기간 전주시 문화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만 모아 전세계 한상인들이 비즈니스 대회 참여뿐만 아니라 다채롭고 품격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마당참극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 △2024 SING STREET △조선팔 상설공연 △전동성당 미디어파사드 △경기전 왕과의 산책 △공예 체험 C-STREET △전주비빔밥 만들기 △한지 뜨기 체험 △한옥마을 해설 투어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전주한옥마을 곳곳에서 펼쳐졌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전주의 매력을 가득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를 위해 전주시를 찾은 전세계 한상인들이 대한민국의 대표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 곳곳에서 전주의 문화를 즐겼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들이 책의 도시 전주에서 가을철 책 나들이를 즐겼다.

유명 그림책 작가들 전주 찾아

전주시, 출판 관계자 초청 도서관 여행 운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들이 책의 도시 전주에서 가을철 책 나들이를 즐겼다.

전주시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국내 유명 그림책 작가 및 출판 관계자를 초청해 전주시의 우수한 도서관 인프라 및 독서문화 등을 홍보하는 도서관 여행인 '나들이 마당'을 운영했다.

여행에 참여한 그림책 작가와 관계자들은 첫날 전주시립도서관 북심과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인후도서관, 완산도서관 등 전주의 대표적인 도서관들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들은 또 전주지역 그림책 활동가와의 만남을 통해 '전주국제그림책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확장을 위한 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어 둘째 날에는 한옥마을도서관과 동문헌책도서관, 다가여행자도서관, 서학예술마을도서관, 첫마

중길여행자도서관 등 전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색화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해 가을철 전주 도서관 여행을 만끽했다.

시는 전주시 그림책 문화에 대한 작가들의 이해를 높이고, 그림책산업 활성화를 위한 그림책 생태계 주체간의 만남을 지원한 이번 도서관 여행을 바탕으로 내년에 개최될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관'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전주국제그림책도서관이 다양한 그림책문화 활성화 및 그림책산업의 확장을 위한 대한민국 대표 그림책 교류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전주의 우수한 도서관 인프라를 바탕으로 그림책 문화의 거점 도시로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특강 실시

취업 준비생 대상 워크넷 활용 통한 구직기술 전수



전주시는 23일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전주지역 일자리 유관기관들의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구직전략기술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전주시일자리지원센터(전주시)와 전주고용센터(고용노동부), 전북중장년내일센터(노사발전재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가족부),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전북특별자치도) 등 각 부처·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들의 주요 사업과 지원 대상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또한 구직자들이 자신의 연령과 성

별에 특화된 곳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직자 중심의 구

직기술전라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체계적인 워크넷 서비스 이용 방법과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유용한 활용법 등도 안내됐다.

이와 함께 이날 특강에서는 구직자들이 청년·여성·중장년·장애인·노인 등 각자의 특성에 따라 일자리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상반기에도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반기 구직전략기술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김해숙 전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평소 구직자들이 궁금해하는 일자리 사업의 접근 경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취업 준비생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구직활동을 하는 전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사회 초년생 위한 전주시 금융플러스+ 아카데미 개최

전주시가 맞춤형 금융 특강을 통해 예비직장인과 대학생 등 사회 초년생들의 자산관리를 도왔다.

시는 23일 전주대학교 자유관 강의실에서 예비직장인과 대학생, 일반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3회 전주시 금융플러스+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사회 초년생 생애자산관리 기초'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강좌에서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직장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자산관리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날 교육에는 류근성 미래와금융연구포럼 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대다수의 초기 직장인이 어려움을 겪는 씨드머니를 활용한 주식이나 펀드, 연금보험 등 재무설계의 기본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류 대표는 애플투자증권 대표이사 CEO와 동부증권CEO, 메리츠증권 전무를 역임했으며, 현재 미래와금융연구포럼 대표와 (사)한국에티비시니어협



회 회장을 맡으며 지자체와 대학교,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 활발한 금융교육을 해온 금융전문가이다.

시는 교육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이 사회변화에 따른 금융투자 자산관리 성숙전략을 세우고, 확실한 미래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나침반 역할을 특목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이에 앞서 시는 올해 시민들의 금융 상식을 높이기 위한 '2024년 전주시민 금융교육'의 일환으로 △지역 대학생들의 건전한 투자관 확립을 돕는 '금융포드폴리오 교육프로젝트' △미래 소비 주체인 초·중학교 아이들의 금융 상식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금융학교' 등을 추진했다.

김수미 전주시 신성장산업과장은 "이번 교육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자산관리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일상의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지사협 위원들은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공

중화산2동 지사협, 홀몸어르신 콩나물 재배 키트 나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동장 김용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현욱)는 23일 거동이 불편한 홀몸어르신들에게 일상의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콩나물 재배 키트 50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콩나물 재배 키트 나눔 사업은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사회활동이 어려워 심리적으로 위축된 홀몸 가구에 매일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콩나물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일상의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지사협 위원들은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콩

나물 키트를 전달하고, 재배방법을 알려드리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착한기게'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 이상을 중화산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정기적으로 기부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관리하고 있다.

이현욱 위원장은 "콩나물을 키우며 어르신들이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시민이 함께하는 **군산**
 자립도시

어딜가든 맛집! 군산짬뽕